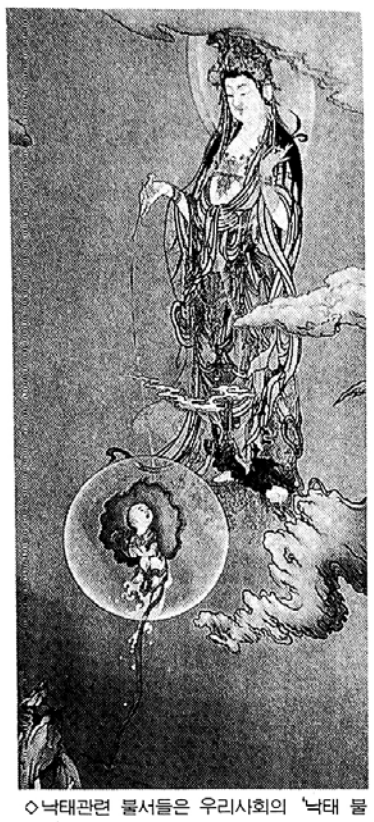

◇낙태관련 불서들은 우리사회의 '낙태 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전이다. 사진은 〈아가야, 용서해다오〉 중에서.

'영가천혼법어' '어둠의 빛으로…' '아가야 용서해…' 등

낙태 부도덕 다룬 불서 '봇물'

"너 뗐니? 나도 뗐어." 청소년 사이에 '낙태계' 열풍이 불고 있다는 보도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일 유태환교수(인제대 의대)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수술의 86%가 불법이었으며,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의 77%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에서 한해에 실시되는 낙태건수는 약 4천5백만건(96년 2월 WHO 발표). 태아 3명중 1명이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이 불법태아성감별과 낙태시술을 해준 산부인과의사들을 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것은 여아 낙태를 통한 인위적인 성비(性比)파괴가 비인도적 범죄일뿐 아니라 결혼제도의 붕괴, 성폭력 증가등 사회문제를 초래한다는 뒤늦은 인식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같은 불법 임신중절을 막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여성들의 '낙태는 살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관련 낙태의 부도덕성과 낙태아천도의 중요성을 알리는 불서들이 사회의 시류를 반영하듯 계속 발간되고 있어 주목된다.

성우스님의 〈영가천혼법어〉, 자우스님의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묘각스님의 〈아가야, 용서해 다오〉, 자인스님의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현장스님의 〈떠도는 넋들을 위하여〉, 성덕스님의 〈불설 아미타경〉, 도서출판 '이바지' 편집부의 〈49재 공덕과 의미〉 등이 이러한 책들이다.

모두 낙태를 묵인해 온 도덕심에 경종을 울리고, 부득이 낙태를 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억울하게 사라져간 영혼들에 대한 사죄와 정성스러운 천도(薦度)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 지난 9월부터 책방 여시아문 집계 베스트불서에 오른 〈49재 공덕과 의미〉는 현대의 영가천도 영험담을 수록해 불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 〈불설 아미타경〉은 아기영혼 천도를 위한 사경 책으로 눈길을 끈다.

생명존엄성 강조…"살생막자" 한 목소리

영가천도 영험담·사경책도 '눈길'

물론 이같은 불서들은 〈타태경(墮胎經)〉〈불설포태경〉〈증일아함경〉〈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등 경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들 경전들은 한결같이 낙태(墮胎)를 살생으로 여기고 아비지옥(阿鼻地獄: 최악의 지옥)에 떨어질 극악한 죄라고 규정한다. 임신중절을 많이 한 부인들이 온갖 병에 시달리거나 까닭없이 불화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낙태 영가가 태어나지 못한 생에 대한 집착과 원망때문에, 오랫동안 중음신(中陰身)으로 떠돌며 제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이란 것. 이런 예가 바로 현세의 업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전은 "태아를 죽인 죄를 지었더라도 부처님과 불법을 통해 지성으로 천도 공양하면 죄업이 소멸되고 이고득락(離苦得樂)한다"고 설하고 있어 죄를 씻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낙태아 천도에 가장 관심을 가져 온 스님으로는 파계사 주지 성우, 금강사 주지 자우, 대원사 주지 현장스님 등. 성우스님은 지난 80년대 초부터 낙태반대운동을 벌여왔으며 올해부터 1년에 두번 '태령영가천혼재'를 지내고 있다. 자우스님과 현장스님도 수년전부터 정기적으로 '태아영가천도재'를 지내고 있으며, 태아영가 영단(靈壇)까지 마련해 놓고 있다.

김재경 기자

네 발밑부터 살피라 | 정념스님 지음

30여 고승 경책·수행담등 법어모음

선사들의 간곡한 충고와 교훈이 담긴 글을 가려뽑아 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의 길을 올곧게 제시하는 법어집이 나왔다. 설악산 봉정암주지 정념스님의 〈네 발밑부터 살피라〉가 그것.

'수행자들에게 보내는 선사들의 권고'를 부제로 단 이 책은 한국 중국의 30여 선사들이 수행자들에게 주는 경책과 훈계를 비롯, 몸소 체험한 수행담과 수행도중에 일어나는 정신적인 변화, 그리고 오도(悟道)에 들어서는 순간의 감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수행자들에게는 수행을 점검하는 거울이, 禪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되돌아보고 마음밭(心田)을 다지는 계기가 될것으로 보인다.

〈장승 6천원〉

화제의 책

원효의 화쟁논리 | 사토 시게키 지음

'금강삼매경론' 중심 원효사상 조명

사토 시게키 교수(57·대불대)가 동국대 박사('93년)논문을 수정보완해 펴낸 〈원효의 화쟁논리〉는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원효사상을 조명한 본격적인 학술서다.

이 책은 모든 대승경전의 근본사상을 회통한 〈금강삼매경〉의 종지를 무이이불수일(無二而不守一) 사상으로 표현한다. 또한 그 구조가 바로 원효의 화쟁(和諍)을 표현한 이면성, 즉 귀일심원(歸一心源=法空)과 요익중생(饒益衆生=普法)을 밝힌 논리임을 증명한다. 부록으로 〈금강삼매경론〉의 서장역 북경판 및 돈황사본 일부분,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버클리대)의 〈금강삼매경〉 영역본을 함께 실어 비교 대조할 수 있게 했다. 〈민족사 2만3천원〉

화제의 책

불교심리학 | 루네 요한슨 지음

연기론을 심리학적으로 분석

스웨덴 출신 심리학자 루네 요한슨이 쓴 〈불교심리학〉은 불교의 연기론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그의 최후의 역작이다.

〈불교심리학〉은 십이연기론의 12요소 각각의 의미와 심리학적 의미를 팔리경전 중에서 각 항목의 뜻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연기론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마음의 본질, 그리고 '자아'라는 환상의 본질에 대해 명쾌한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는 마음을 통제하고 감시함으로써 애착을 버리고 감각을 통제하며 감각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연기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실용적 심리학이란 설명이다. 박태섭 옮김. 〈시공사 6천5백원〉

부처님 일대기 '하늘길' 펴낸 자민련불자회장 **정상구** 의원

"인류구원의 자비사상 서사시로 풀어냈어요"

"머리로 높은 산 베어 보임은 가장 높은 道를 성취할 징조요 몸 바다속에 누워 보임은 중생 위해 나고 죽음 속에 있음이로다…."

정상구의원(71·자민련 상임고문)의 불교서사시 〈하늘길〉(시문학사 刊) 제1장 '하늘 문 여는 불타의 전신(前身)'에 나오는 한 구절. 국회 종각회 고문이자 자민련불자회장인 정상구의원이 세종이 편찬한 〈월인천강지곡〉 이후 처음으로 부처님 일대기를 다룬 서사시 〈하늘 길〉을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기쉽게 가슴에 와닿도록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는 정의원은 "〈하늘 길〉은 부처님이 이욕적정(離欲寂靜)의 묘법을 닦아 깨달음의 길, 즉 열반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원은 또 "〈하늘 길〉이 부처님 일대기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목표로 하는 자비사상을 중심축으로 한 것은 개인적인 깨달음을 넘어 남도 함께 깨닫게 해야 한다는 대승불교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라며, '타인의 성불을 돕는 것이 불자의 임무'라는 인식을 항상 지니고 시작(詩作)을 했다고 말한다.

〈하늘 길〉은 방대한 서사적 진술, 경전에 가까운 무궁무진한 진리, 禪문답에서 볼 수 있는 게송체, 초현실주의 기법 등 특유의 독자적 기법 등으로 시사적(詩史的)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랑과 깨달음의 세계〉 등 30여종 이상의 저서와 시집을 낸 정의원은 한국현대시인협회 고문, 대한민국서화예술인협회 고문, 한국다도협회장 등을 맡고 있는 만능예술인.

테마답사기 '우리산 옛절' 발간

김장호·김승호씨 공저 지도·사진 수록 산천 '한눈에'

◇김장호씨

◇김승호씨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그 산에 자연스럽게 어울린 옛절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지형을 문학적으로 살펴나간 답사기가 나와 화제다. 동국대 김장호 명예교수와 서울신문 김승호기자(동국대 강사·국문학)가 함께 한 '테마가 있는 우리옛절 순례기'인 〈우리산 옛절〉(대원정사 刊).

그간 명찰을 주제로 한 답사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 책은 전국의 명산을 중심으로 거기에 들어선 절이며 암자를 찾아가는 형식을 밟아 나가기에 독특한 맛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기존 답사기와 달리 필자들의 시적인 아름다운 문체가 문학기행문을 연상시킬 정도로 감칠맛이 난다. 사찰연기담 또한 그에 걸맞게 구성지며 자연스레 힘이 느껴온다.

시인 김장호교수는 전국의 산을 40여년간 오르내렸기에 그 산과 절을 그려내는 맛이 멋들어져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하게 한다. 또 사찰연기 설화를 쓴 김승호기자는 사찰연기에 대한 연구로 동국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해박한 지식과 역사적인 안목으로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

이밖에 상세한 안내지도와 생생한 사진이 산천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한 점도 눈에 띈다.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절들이 일반인의 눈에 생소하고 산 중턱이나 정상부근에 자리잡고 있어 그 산이며 절로 접어드는 안내지도를 곁들인 것.

신국판 354쪽, 7천5백원.

월간 '정토' 100호 발간

월간 〈정토〉(발행인 법륜)가 11월호로 통권100호를 기록했다.

지난 88년 5월 창간한 〈정토〉는 '바른 불교, 쉬운 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면서 4백여명의 영구회원과 유료회원 3천여명의 도움으로 전국의 군법당·교도소 등에 매달 1만7천여부이상을 무료로 법보시하는 등 지난 9년간 문서포교의 선두에 서왔다.

발행인 법륜스님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토〉지가 되도록 앞으로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월간 정토 100호기념 서암스님 초청법회'가 오는 20일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02)3471-3145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삶은 苦가 아니다	혜 원	여시아문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 계 종
5	그 마음을 바쳐라	김 재 웅	용 화
6	49재 공덕과 의미	편 집 부	이 바 지
7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8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4	우 학	좋은인연
9	신도포교지침서	성 일	불 광
10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구입문의:(02)737-0695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100선' 쉽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주년 기념 출간

조계종 종정 월하 스님을 비롯한 큰스님 33인의 법어 모음집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빛이 될, 선지식 33분의 육성법어집

세상 모든 사람을 부처로 바라보게 하는 책!

언어를 넘어선 언어의 참된 맛

오직 수행만을 '일 없음의 일'로 삼는 우리들의 큰스님. 그런 스승들이 계시기에 아직 우리 사회는 빛을 잃지 않고 있다.

45년 간 설하시고도 '나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無說一字).'는 그 정신을 읽지 않고는 큰스님들의 '말'에 다가갈 수 없다. '말 없음의 말'인 까닭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큰스님들의 육성법어를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현대불교'에서 기획한 '지상법석'을 엮은 것이다. 어떻게든 깨닫게 하시려는 큰스님들의 간절한 사랑이 때론 서슬퍼런 일갈로, 때론 자상한 언어로 펼쳐진다.

뒤집힌 꿈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342쪽 / 값 7,000원

여시아문의 마음 밝히는 책들 / 여시아문은 선지식들의 가르침을 동시대인들과 나누기 위해 '마음 밝히는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지상법석)된 33분 큰스님들의 법어집인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삶과 수행의 등불이 될 소중한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에서 판매중입니다.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자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